



한국여자축구대표팀 이민아(오른쪽)가 11일 일본 지바 소가스포츠평크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북한과의 2차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지바(일본) | 뉴스시스



경남FC는 11일 김종부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 김 감독은 올해 팀을 K리그 챌린지 우승으로 이끌며 클래식 승격을 이뤄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경남FC '김종부 매직' 클래식서도 이어질까

감독 재계약... "성적으로 보답할 것"

경남FC가 팀을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우승으로 이끌어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김종부(52) 감독과 재계약했다. 경남은 11일 "김 감독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계약기간과 조건은 상호협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남의 사령탑을 맡아 승부 조작과 관련해 승점10 감점 을 받은 팀을 리그 8위에 올려놓으며 선수단을 잘 이끌었다. 올해에도 팀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김 감독 지휘 아래 경남은 시즌 중반 리그 선두에 올라 선 이후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챌린지 우승으로 2018년 클래식 무대 직행을 이뤄냈다.

김 감독은 "올해 챌린지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열매를 수확한 만큼, 내년 클래식 무대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환경호 도시사 권한대행과 조기호 대표이사에게 감사드린다. 올 시즌 보내 주신 도민들과 팬들의 성원을 내년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K리그 챌린지 정규리그가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팀을 이끌어왔다. 경남은 6일부터 함안에서 훈련하며 내년 시즌 대비에 들어갔다. 경남은 올해 연말까지 국내 훈련을 마치고 내년 1월 초 다시 모여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남북관계만큼 살벌했던 여자축구 남북전



고봉준의 여기는 지바

북한, 대북 제재로 우승 해도 상금 못 받아 응원 온 조총련계 재일동포들 취재진 경계 '공격전' 결계 걸고 "필승 조선" 구호 외쳐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관계를 암시하기라도 하듯, 경기장 일대엔 차디찬 바람만이 가득했다. 한국과 북한의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여자부 2차전이 열린 11일 일본 지바 소가스포츠평크.

4월 평양 경기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여자축구는 사뭇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운명의 일전을 치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떠오른 최대 화두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이는 곧 동아시아 기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일본 한복판에서 열리는 E-1 챔피언십도 민감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EAFF가 내놓은 극약처방은 북한의 상금 미지급이었다.

E-1 챔피언십은 참가팀 모두에 상금을 지급한다. 남자부 우승팀이 25만 달러(약 8000만원), 여자부 우승팀이 7만 달러(약 7800만원)를 가져가고, 나머지 팀들이 차등으

로 보너스를 쟁긴다. 남자부 최하위팀과 여자부 최하위팀도 각각 5600만원과 11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북한이었다. 최근 국제연합(UN)의 제재조치 결의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이 일본으로 입국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양국 관계는 얼어붙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특례 허가에 따라 북한 남녀 선수단은 일본 땅을 겨우 밟을 수 있었지만, EAFF 측은 최근 정세를 고려해 상금 미지급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남북전을 찾은 북한 응원단으로부터도 느낄 수 있었다. 경기시작 2시간을 앞두고 만난 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통칭 조총련) 계열의 재일동포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응하지 않았다. 거대한 인공기를 사이에 두고 찍은 사진 한 장이 가능한 정도였다.

경기장 안에서의 북한 특유의 응원 분위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남북전에 앞서 치른 8일 중국전(여자)과 9일 일본전(남자)에서 펼친 열광적인 응원으로 일본 현지의 관심을 받았던 이들은 남북전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격전', '만리마' 등이 적힌 깃발을 내걸은 한편, '필승 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전을 기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만든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한반도를 벗어나 치른 19번째 여자축구 남북전은 그렇게 흘러갔다.

지바 | 고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 이번에도 북한 벽 넘지 못한 태극남자들

김윤미 헤딩골 허용 0-1 패배...우승 좌절 동아시아 정상 도전 한국, 또 북한에 발목

북한의 벽은 역시 높았다.

윤덕여(56)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국가대표팀이 11일 일본 지바 소가스포츠평크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북한과의 2차전에서 0-1로 졌다. 8일 일본전 2-3 패배에 이은 2연패 수렁이다. 한국은 이로써 남은 중국전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12년만의 대회 우승이 좌절됐다. 반면 북한은 2연승으로 3회 연속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갔다.

현실적인 전력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은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으로 치른 평양 원정에서 1-1 무승부로 선전하며 이번 대회 필승을 다짐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윤덕여 감독은 일본전에서 맹활약했던 이민아(26·인천 현대제철)를 2선으로 내리고, 유영아(29·구미 스포츠토토)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4-1-4-1 포메이션을 펼쳤다. 물론 패스 감각의 이민아가 앞 선으로 길을 터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전반 초반 효과를 봤다.

이민아가 중원을 누비며 여러 차례 침투 패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동료 미드필더들이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결국 화를 불렀다. 전반 18분 오른쪽으로 치고 나온 리향심(21)을 수비수들이 놓쳤다. 빈 공간을 확보한 리향심은 침착하게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174cm의 장신 공격수 김윤미(24)가 이를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기록했다. 한국대표팀의 수문장 김정미(33·인천 현대제철)가 몸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를 맞은 뒤 골망을 갈랐다.

리드를 허용한 한국은 이후 주도권을 빼앗기

고 말았다. 공격에선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수비에선 위험한 장면을 노출했다. 윤덕여 감독은 전반 45분과 후반 5분, 이소담과 최유리를 차례로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소득 없이 후반을 마쳤다. 중요한 순간마다 나온 패스 미스도 아쉬웠다.

결국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축구가 동아시아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선 북한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 됐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한국은 28년 동안 북한과 총 19차례 맞섰는데 단 1승(3무15패)에 그쳤다. 유일한 1승은 12년 전 동아시아축구선수권(E-1 챔피언십 전신)에서 나왔다. 당시 한국은 북한전 1-0 승리를 앞세워 초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후 번번이 북한의 벽에 가로막혀 2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남북전은 윤덕여호에 빠져진 교훈을 남긴 경기였다.

지바 | 고봉준 기자

양 감독의 말

"북한 특유의 스피드 막지 못했다"

●한국 윤덕여 감독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 북한 특유의 스피드를 막지 못했다. 일본전에 이어 오늘 역시 내년 아시안컵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세컨드 볼 점유율이 낮았고, 상대 공격을 차단한 이후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훈련을 통해 부족함을 메우겠다.

"한국 선수들 기 죽은 모습이였다"

●북한 김광민 감독

선수들이 경기를 잘 치렀다. 4월 평양에서 무승부를 거둔 뒤 다시는 그러한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때를 교훈삼아 선수들이 푹 푹 뭍었다. 첫 경기였던 중국전에선 젊은 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전부 펼치지 못했지만, 오늘은 정신력이 결부돼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 선수들은 4월 경기에 비해 다소 기 죽은 모습이였다.



부산 최윤겸 선임 감독

### "반드시 승격 해야만 한다" 부산 새 사령탑에 최윤겸

최윤겸(55) 전 강원FC 감독이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 선임 사령탑에 선임됐다.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조진호 감독을 대신할 사령탑 물색에 나선 부산은 팀 재건의 책임자로 최윤겸 감독을 선택했다. 최 선임 감독은 2001년 부천SK 감독을 시작으로 대전시티즌(2003~2007년), 호양 안야라이(2011~2014년·베트남)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2015년 강원FC 감독으로 부임해서는 2016년 클래식(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최 감독은 8월 성적부진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4개월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최 감독은 "부산 구단의 위치는 명쾌하다. 기업구단으로서 반드시 승격을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안타까웠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겠다. 경쟁력을 키워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대회도 대회지만...신태용 감독 '바쁘다 바빠'

E-1 챔피언십은 물론 해외파도 챙겨야 19일 유럽행...대표팀 퍼즐 맞추기 골몰

시간은 촉박한데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2018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신태용(47)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울겨울이 그렇다. 당장 치르고 있는 대회에 신경을 쏟는 한편, 함께 뛰지 못하는 선수들을 점검하기 위해 결눈질을 해야 한다. 신 감독은 현재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대표팀을 통솔하고 있다. 9일 중국전에서 아쉬운 2-2 무승부를 거둔 터라 12일 북한전에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운명의 남북전을 하루 앞둔 11일, 도쿄 니시가오카 아지노모토 필드에서 훈련을 지휘한 신 감독의 목소리는 당했다. 상대를 경계하면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일념을 숨기지 않았다.

신 감독은 "일본전에서 드러난 북한의 전력은 의외였다. 조직력 특히 수비라인이 탄탄했다.

전제적으로 내려오는 수비를 펼친 뒤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대비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의 중국전 내용도 완벽했다. 협력수비와 실점 장면이 아쉬웠을 뿐이다. 북한전에서는 과정은 물론 결과도 얻어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번 대회만이 아니다. 현재 대표팀에 함께하지 못한 유럽파도 함께 챙겨야 한다. 신 감독은 "대회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 하루 휴식을 취하고 19일 유럽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현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수들이란 유럽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5·토트넘)과 권창훈(23·디종FCO),

황희찬(21·잘츠부르크), 석현준(26·트루아AC)을 의미한다. 이들은 최근 나란히 절정의 감각을 과시하며 신 감독을 미소 짓게 하고 있다.

신 감독 역시 유럽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대표팀 조각을 확실하게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세부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 감독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유럽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 6월까지의 고생을 조금 해야 싶다"며 몇 째 웃었다. 실전 손발 맞추기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되는 월드컵 밀그림 작업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신태용의 겨울'은 바빠 돌아갈 듯하다.

도쿄 | 고봉준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